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11. 4.(금)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 오화세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 고선영 (02-2100-2991)

##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

### - 신용카드사 및 캐피탈사 자금조달 동향 점검 -

- '22.11.4일(금), 금융위원회(금융산업국장 주재)는 금융감독원, 여신금융협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(신용카드사, 캐피탈사)와 함께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
  - 이번 회의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(여전채, CP 등) 동향을 점검하고,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.
- 금융당국은 최근 채안펀드에서 일부 여전사의 채권을 매입(11.3일~)하는 등 여전채 관련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.
  - 한편, 현재 시행중인 증권사 파생결합증권(ELS, DLS 등) 헤지자산 관련 여전채 편입한도 축소 계획도 유연하게 완화 적용할 예정입니다.
    - 이에 따라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관련 여전채 편입한도(2022년 말까지 12%)가 2023년부터 8%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, 이를 3개월 유예하여 2023.3.31일까지는 종전의 12%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.
-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유동성 및 자산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,
  -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.

-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,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 오화세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 고선영 (02-2100-2991)
<공동>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책임자	과 장 이수영 (02-2100-2650)
		담당자	사무관 신용진 (02-2100-2644)
<공동>	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	책임자	국 장 이종오 (02-3145-7550)
		담당자	팀 장 이성희 (02-3145-7552)